

**아버지 브라마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들의 버림과 타파사와 봉사의 분위기를 사방에 퍼뜨려라.**

오늘 힘으로 가득 찬 밥다다는 힘으로 가득 찬 그의 자녀들을 보고 있다. 오늘은 기억의 날이며 힘의 날이다. 오늘은 모든 힘의 유언을 자녀들에게 준 날이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유언이 있지만, 아버지 브라마는 그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모든 힘의 유언을 만들어 자녀들에게 주었다. 다른 어느 누구도 이와 같은 알로키(영적인) 유언을 작성하지 못한다. 아버지는 아버지 브라마를 그의 도구로 만들었고,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는 도구가 될지어다”라는 그의 축복의 유언을 너희 자녀들에게 주었다. 이 유언이 너희 자녀들로 하여금 모든 힘을 쉽게 경험하게 해 줄 것이다. 너희 자신의 노력으로 힘을 경험하는 것과 신의 의지를 통해 모든 힘을 경험하는 것은 다르다. 이것은 신의 선물이며, 신의 축복이다. 너희가 발전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신의 축복이다. 너희가 축복을 받을 때에는 노력하느라 애 쓸 필요가 없다. 신이 너희를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쉽게 자동적으로 발전한다. 그 당시에는 바바 앞에 아주 극소수만이 있었다. 그러나 너희 특별한 자녀들에게는 밥다다, 특히 아버지 브라마의 이 유언이 주어졌다. 밥다다는 아버지의 이 유언이 주어진 자녀들, 본래의 보석들과 봉사의 도구들인 자녀들이 그들이 받은 유언을 매우 잘 사용하는 것을 보아 왔다. 이 유언 덕분에 브라민 가족이 나날이 늘고 있다. 이 성장은 너희 자녀들의 특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했고, 그것은 계속되고 있다.

밥다다는 자녀들에게서 두 가지 특기를 보고 있다. 도구들로 만들어진 자녀들과 동반자인 자녀들의 특기는 매우 좋았다. 너희들이 창조의 본래의 보석이든, 아니면 봉사의 보석이든 간에, 너희들의 첫째 특기인 너희들 서로 간의 화합이 매우, 매우, 매우 좋았다. 너희들 중 어느 누구도, 생각에서조차 “왜?”, “무엇이?”, 또는 “어떻게?”라는 의문을 조금도 갖지 않았다. 너희들의 둘째 특기는 너희 중의 누군가가 뭔가를 제안하면 다른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여분의 힘의 유산의 분위기에서 오는 특기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도구 영혼들 모두는 사방에서 오직 “바바, 바바”만을 볼 수 있었다.

그런 때에 밥다다는 그의 마음 속에 도구인 자녀들에 대한 참으로 많은 사랑을 느낀다. 아버지의 경이로움이 있었지만, 너희 자녀들의 경이로움도 그에 못지 않다. 그 때의 모임의 화합과 모두가 단결됨은 오늘날에까지 봉사가 잘 발전하게 만들고 있다. 왜냐? 너희 도구 영혼들의 토대가 굳건해졌다. 심지어 밥다다조차도 너희 자녀들의 오늘날의 경이로움을 찬양하셨다. 사방의 자녀들이 바바를 사랑의 화환으로 둘러고,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의 경이로움의 찬양을 노래했다. 너희들은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오래 지속되리라고 생각한 적이 있느냐? 그것이 얼마간이었느냐? 모든 이의 입과 가슴에서 나온 소리는 너희들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밥다다는 아비약트 형태를 통한 봉사가 아직도 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희들은 사카르 시절에 이렇게 큰 홀을 지었었느냐? 그 때에 바바의 지극히 사랑스러운 2종의 외국인 자녀들이 왔었느냐? 2종의 외국인 자녀들은 아비약트 부양을 통해서 영적인 탄생을 해야 했다. 이 많은 자녀들 모두가 왔어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브라마는 그의 육신의 몸을 버려야 했다. 너희 2종의 외국인 자녀들은 이 아비약트 부양을 받을 가치가 있다는 도취감을 가지느냐?

아버지 브라마의 버림은 특별히 드라마에 고정되어 있다. 아버지 브라마의 버림과 너희 자녀들의 행운은 처음부터 드라마에 쓰여져 있다. 아버지 브라마는 가장 최고의 버림의 모범이 되었다. 버림은 너희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림을 의미한다. 시기와 문제에 의해서 버리는 것은 고귀한 버림이 아니다. 처음부터 브라마 바바는 몸, 마음, 부, 그리고 관계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렸다. 그는 심지어 그의 몸조차도 버렸다. 그는 모든 시설들을 가질 수 있었지만, 그 자신은 여전히 낡은 건물에 살았다. 사방에서 시설들이 오기 시작했고,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도 있었지만 매우 확고하게 영적인 노력에 머물렀다. 저 브라마가 했던 타파사가 너희 모든 자녀

들의 행운을 만들어냈다. 드라마에 의해서 오직 브라마만이 그런 버림의 모범이 되었다. 생각의 힘으로 봉사하는 그의 특별한 역할이 창조된 것은 이 버림으로 인한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자녀들이 빠른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들은 아버지 브라마의 버림의 스토리를 들었느냐?

너희 자녀들은 아직도 브라마의 타파샤의 결실을 받고 있다. 그의 타파샤의 영향은 마두반의 땅에 스며들어 있다. 그 자녀들도 역시 그와 함께 있다. 그 자녀들의 타파샤도 또한 있었다. 그러나 그래도 너희들은 아버지 브라마가 도구였다고 말할 것이다. 브라민 자녀들과 타파스위 땅인 마두반에 온 사람들조차도 이곳의 분위기와 파동이 그들로 하여금 쉬운 요기가 되게 해 주었음을 경험했다. 여기에서는 너희가 요가를 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는데, 왜냐하면 너희들의 요가가 쉽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영혼이 여기에 온다 해도 그들은 반드시 뭔가를 경험한다. 그들이 지식을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틀림없이 영적인 사랑과 평화를 경험한다. 그들은 반드시 뭔가 변모를 경험하고서 집으로 돌아간다. 이것은 브라마와 브라민 자녀들의 타파샤의 영향이다. 이것과 함께 그가 어떻게 봉사했는지를 보아라. 그는 어떻게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봉사를 하는지 실질적인 시범을 자녀들에게 보여 주었다. 너희들은 지금 그 모든 다양한 방법들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너희 자녀들이 아버지 브라마의 버림과 타파샤와 봉사의 결실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 자녀들 모두도 너희의 버림과 타파샤와 봉사의 분위기를 세계에 퍼뜨려야 한다. 과학이 실질적인 방법으로 그 영향을 보여 주고 있듯이, 과학을 창조한 침묵의 힘도 역시 드러나야 한다. 지금은 침묵의 힘을 실질적으로 드러낼 때이다. 침묵의 힘의 파동을 매우 빨리 퍼뜨리는 방법은 마음과 지각을 집중하는 것이다. 이제 집중하는 연습이 늘어나야 한다. 오직 너희들의 집중하는 힘을 통해서만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격변이 있을 때에는 강력한 파동이 만들어질 수 없다.

오늘 밥다다는 집중력이 더 많이 필요함을 보았다. 너희 자녀들 모두는 이제 너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의 슬픔의 상황을 변화시키겠다는 결단력 있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들을 위한 이런 자비심이 너희들의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과학의 힘은 그런 격변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너희 브라민들 모두는 너희의 침묵의 힘, 자비의 느낌과 생각으로 그 격변을 변화시키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너희들은 고조부의 자녀들이다. 모든 이들이 너희의 가계도의 가지에 속하는, 너희의 가족이다. 너희들은 너희의 신봉자들의 특별한 신인들이다. 너희들은 너희가 그들의 특별한 신인들이라는 도취감을 갖느냐? 너희들의 신봉자들은 너희를 소리쳐 부르고 있다. 그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그들은 “오 특별한 신인이시여!”라고 소리쳐 부른다. 그러나 너희들은 그저 듣기만 하고 응답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밥다다는 지금 너희들에게 “오 신봉자들의 특별한 신인들이여, 이제 그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어라! 그저 듣지만 말고 그들에게 응답해라.”라고 말한다. 너희들은 그들에게 어떤 응답을 줄 것이냐? 변모의 분위기를 만들어라. 너희들에게서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주의해진다. 그들은 너희들을 소리쳐 부르다가 조용해진다.

너희들은 모두 아버지 브라마가 모든 일에 대해 갖던 열의를 보았다. 처음에 그는 열성적으로 열쇠를 찾았다. 지금도 아버지 브라마는 여전히 쉬브 바바에게 이것을 요청하고 있다: 집으로 가는 문을 열 열쇠를 저에게 주세요. 그러나 적어도 바바와 함께 가야 할 이들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가 혼자서 무엇을 하겠느냐? 그러니 너희들은 지금 브라마 바바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그를 뒤따라가겠느냐? 너희들은 브라마 바바와 함께 갈 것이다, 그렇지 않느냐? 그러므로 아버지 브라마는 너희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라고 바바에게 말하고 있다: 만일 아버지가 너희 자녀들에게 열쇠를 준다면, 너희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겠느냐? 너희들은 항상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니면 너희들은 항상 준비가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준비된 상태이냐? 항상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들은 버림과 타파샤와 봉사의 세 가지 시험지를 받아 볼 준비가 되어 있느냐? 너희가 많은 사랑의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아버지 브라마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비록 브라마 바바는 그 눈물들을 그의 가슴속에 진주처럼 담아 두지만, 또한 “언제 너희 모두가 항상 준비될 것이냐?”라는 생각을 틀림없이 한다. 너희들

은 날짜를 알려 주어야 하느냐? 너희들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적어도 너희의 동반자들을 창조해라! 아니면 동반자들을 뒤에 남겨 두고 너희 혼자 갈 것이냐? 너희들은 “그러나 아버지 브라마도 우리를 떠났잖아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창조를 이룩해야 했다. 그에게는 빠른 성장의 책임이 있었다. 너희들 모두가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단 한 사람만이 아니다! 바바가 혼자갈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 모두를 함께 데려갈 것이냐? 너희들 모두가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너희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느냐, 아니면 그렇게 될 것이냐? 말해 보아라! 적어도 90 만 명은 함께 가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너희가 누구를 다스리겠느냐?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다스릴 것이냐? 너희 자녀들 모두를 위한 아버지 브라마의 순수한 소망은 “항시 준비되어 있고 남들도 항상 준비되어 있게 만들어라”라는 것이다.

오늘 특별한 본래의 보석들과 봉사의 본래의 보석들이 서틀 리전에 나왔었다. 미리 간 선발대 (advance party)의 사람들은 그들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 준비가 되었느냐? 그들은 말한다: 우리가 모두 드러나고 새로운 세계의 창조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계시의 복을 쳐라. 우리들은 새로운 세계의 창조자들을 부르고 있다. 모든 것이 지금 너희에게 달렸다! 복을 쳐라! 복을 치고, “그가 왔다, 그가 왔다!”라고 알려라. 너희들은 그런 복을 어떻게 치는지 아느냐? 너희들은 반드시 복을 쳐야 한다. 아버지 브라마는 지금 너희들에게 그 날짜를 묻고 있다. 너희들은 모두 날짜가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위해 날짜를 정해라. 날짜를 정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너희에게 날짜를 정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바바는 “오늘 정해라!”라고 말하고 있다. 너희들은 회의를 위해 날짜를 정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것을 위해서 회의를 열어라. 외국에서 온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날짜가 정해질 수 있겠느냐? 날짜를 정하겠느냐? 그러나, 아니냐? 앗차. 다디 장키에게서 조언을 듣고 이것을 해라. 앗차.

밥다다에게 매우 가까운, 사랑의 지극히 사랑스럽고 초연한 자녀들에게.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이 사랑에 넋을 잃고 완전히 사랑에 잠겨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너희들은 듣고 있으면서 만남을 축하하는 그네를 타고 있다. 너희들은 멀지 않다. 너희들은 또한 바바의 눈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눈 안에 들어 있다. 이런 식으로 바바와 사적인 만남을 가진 자녀들에게, 아비약트 형태로 사랑에 넋을 잃은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버림과 타파사와 봉사의 증거를 끊임없이 보여 주는 가치 있는 자녀들에게, 집중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세계를 변모시키는 세계 변모자 자녀들에게, 아버지 처럼 집중적인 노력을 함으로써 끊임없이 나는 더블 라이트한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많고, 많고, 많은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를 보낸다.

**축 복:** 서늘하고 부드러운 너희들의 사랑의 형태로 무시무시하고 불타오르는 어떠한 형상도 변화시키는, 사랑의 형상이 되어라.

너희들의 사랑에 대한 응답으로 축복의 공여자 아버지는 너희 자녀들에게, “매 순간, 모든 영혼과 모든 상황에서 사랑하는 형상이 되어라”라는 이 축복을 준다. 너희의 사랑하는 형상, 사랑의 주고받음, 너희들의 사랑의 관계와 연결들을 결코 포기하거나 잊지 마라. 어떤 이나 물질, 또는 마야가 너희 앞에서 아무리 무시무시하거나 불타오르는 어떠한 형태를 취해도 너희 사랑의 서늘함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변화시키며 계속해서 변화를 가져와라. 사랑의 시선, 태도, 행위로 사랑하는 세상을 창조해라.

**슬로건:**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너희는 강해진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